



월성초, 자녀와 소통·공감하는 ‘달빛월성가족 놀이독서캠프’

대구월성초등학교(교장 우순옥)는 지난 8일(화) 가족독서활동을 통해 건전한 가족 독서 문화 조성,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생 인성교육 및 문해력 향상을 위해 ‘달빛월성가족 놀이독서캠프’를 운영했다.

‘달빛월성가족 놀이독서캠프’에는 34가족 103명이 참여해, 자녀와

가족, 학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캠프는 운동장 자유 놀이, 플루트 연주, 캠프파이어, 텐트 안 가족 독서, 독서토론 순서로 진행됐으며, ▲가족과 함께 놀기, ▲틀려도 괜찮은 퀴즈 풀기, ▲가족 독서 토론하기, ▲가족 독서 약속 정하기 등 부모 자녀 간 관계 회복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하룻 밤’ 이란 책을 함께 읽으며 가족 간 사랑, 3가지 소원, 마지막 소원을 찾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부모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책으로 귀한 가족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처럼 가족과 책을 함께 읽으면서 웃은 적이 없다. 애써주신 학교와 선생님께 감사하다.”라고 했다.

우순옥 교장은 “학교 운동장에서 가족과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책을 읽고, 행복한 가정 문화를 만들도록 학교가 더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자료제공 대구월성초등학교



성서경찰서, 이곡초 5, 6학년 대상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재우)는 지난 8일(화) 이곡초등학교(교장 이진희) 강당에서 5, 6학년 12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학교전담경찰관 이상모 경위는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이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대구성서경찰서



달성초 학교문화 책임규약 교육공동체 서약
대구달성초등학교(교장 이종숙)는 달성 교육 공동체(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동의 하나로 교육공동체 서약 행사를 실시했다.

자료제공 대구달성초등학교

CHU
온리U 드라마
드라마와 입 맞CHU다

해외(유럽)드라마 전문 채널

디지털 95번